

‘수돗물 오염·캠코’ 최대 이슈

광주시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市 추경 2114억 등 심의

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제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제208회 임시회 개회식을 7일 열고 오는 20일 까지 14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역 전수장 수돗물 오염 사고’와 ‘3D 컨버팅(변환) 분야’ 한미합작법인인 캠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7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수돗물 오염사고’와 한미합작법인 캠코에 대한 투자금 지급 문제 및 기술력 겸증 문제 등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강운태 시장이 제출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 제의 요구안 1건과 민생복지 및 시민건강과 직결된 조례안 54건이 처리된다.

이밖에 2012년도 제1회 시·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등 1건, 2020년 광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등의 3건의 의견청취 등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는 광주시의 신규행정수요 대응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처리하게 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공항의 저비용 항공사 유치 및 취항노선의 다양화 등 광주공항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에너지 절감 등 경제성이 높은 LED 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을 처리한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14억원(총 3조4928억원)과 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1420억원(총 1조6541억원) 등 예산안 3건을 심의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은 시인·유병길 1전비단장 광주 명예시민 된다

고은 시인과 유병길 제1전비행단장이 광주시 명예시민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6일 “고은 시인은 광주인권현장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유단장은 통합방위체제 확립 등

광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은 시인 등은 7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이 통과되며 명예시민증을 받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년만에 되살아난 무안 도리포 앞바다

기름유출 피해 딛고 바지락 첫 수확

해양수산과학원·어촌계 환경개선 효과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일대 어장이 4년 만에 되살아났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일대 어장에 2010년 바지락 모래를 이식한 이후 2년여 만에 종稚가 발생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후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까지 타르가 물려와 인근 어장이 황폐화되는 등 큰 피해

가 발생했다.

해양수산과학원과 도리포 어촌계는 환경 복원을 위해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을 양식어장 18ha에 바지락 모래 16t을 이식했다.

그 결과 2년여 만에 종稚가 발생해 현재 3cm 이상 크기로 성장하는 등 환경 개선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상범 도리포 어촌계장은 “최근 하루 평균 5000kg(20kg당 3만 3000원)의 바지락을 채취해 8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처럼만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있다”고 말했다.

수산자원 회복 사업이 결실을 맺은 도리포는 백사장과 해송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에 바지락·빨나지 등 해산물이 풍부해 볼거리·먹을거리 등을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임여호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환경 개선사업 후 이곳을 찾는 어촌 체험객이 매년 늘어 지난 해 1만5000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2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012년도 장학생모집

제3회 이형만역 광주영우장학회(제3회) 장학생시발 祝賀式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생 ~ 대학생
 - 단, 2011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본 자에 포함
 - 광주시민으로 무려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 광주시 11명(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영광군 11명(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총 22명

II. 구비서류

- 정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본인명의)

III. 신청일정

- 서류접수 : 2012. 6. 18(월) ~ 7월 13일(금)

○ 최종선정 : 2012. 8월 중순경 발표(2012년 장학 회보 3호에 발표)

○ 정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 : 2012. 9. 5. 영광군민의 날(예정)

(※ 최종 선정된 장학생 개인별통지 또는 회보에 발표)

VI.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13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 서구 화정동 404 일주체육관 117호, 사무용장 강 대의

www.edaynews.com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 강학신청 접수 확인합니다.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발이 취소됩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주시민가족은 항우장학회 사무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012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 1~2회, PM 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으로 출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젝트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지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작성	2012.06.07 (목) ~ 2012.06.15 (금) 09:00 ~ 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2012.06.07 (목) ~ 2012.06.15 (금) 09:00 ~ 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형 일정	2012.07.03 (화) 10:00 ~
합격자 발표	2012.07.30 (월) 15: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 / 기계공학 / 산업공학 / 재료공학 / 전기전자컴퓨터공학
토목공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 농업개발학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gi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순천~광양 복선 전철화 완료

21일 개통…하루 편도 21회 선로 112회로 증가

동순천~광양간(10.9km) 복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 오는 21일 개통한다. 지난 2004년 7월 착공한 동순천~광양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총사업비 4031억원이 투입돼 7년11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로써 현재 하루 편도 기존 21회인 선로 용량이 112회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 해당 구간 열차운행 시간이 기존 9분에서 7분으로 2분 단축되고,

전기 기관차 운행에 따른 수송원가도 디젤기관차 대비 68% 절감된다.

특히 광양항과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의 배후 수송망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순천역 광장에서 자차체와 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첨단·장성 일대 3년간 개발행위 제한

광주연구개발특구 382만㎡

광주 북구와 전남 장성 일대 382만㎡에 대한 개발행위가 7일부터 3년간 제한된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첨단3지구 등 이 일대가 지난 해 1월 호남권의 교육과 연구·개발 등을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북구 월출동과 대촌동, 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등 광주지역 110만㎡,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등 전남지역 272만㎡가 해당 구역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 유망 中企 64곳 추가 선정

경영안정자금 3억 우대지원

신규 지정 기업 중 확장관 (EXPANSION JOINT)을 생산하는 광양의 (주)삼성플렉스와 선박불록 운송장비인 트랜스포터를 생산하는 순천 윤총산단의 라인호(주) 등이 재무·기술혁신·품질관리 등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됐다.

또 지난 2010년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순천의 프리사는 대기업으로 승격해 전남경제를 이끌 선도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업종별 응자제한 부채율을 추가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 지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이미 지정된 329개 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경영성과, 광장 조업실태 등을 조사해 휴·폐업 등 가동률이 저하하거나 대기업 승급 등에 해당하는 6개 기업을 지정 취소하고 323개 기업을 재지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6일 제57회 현충일 기념식이 열린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내 ‘우리 위한 영의 태’ 앞 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현화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강운태 시장 중앙부처 방문 국비확보 활동



원보다 4551억원 (18.3%)이 증가한 것이다.

광주시는 국비 확보의 가장 중요 한 단계인 중앙부